

Contents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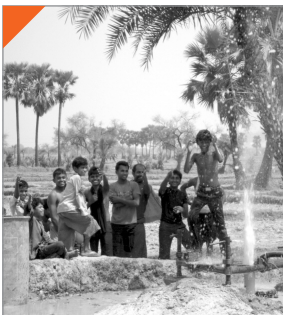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인도의 여름 | 박성재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 김진진
- 12 **쫄리읍수어, 캄보디아**
사업장 소개 | 문태훈
- 15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 오성근
- 19 **밍글라바, 미얀마**
왕초보 활동가 적응기 | 이모아



국내소식

- 22 **함께 나누는 사랑**
어린이 날 기념 거리모금 캠페인 | 편집부
희망두유 전달 | 편집부
통일나눔 성금 전달식 | 편집부
- 27 **함께하는 사람들**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 편집부
매력적인 봉사자의 삶 | 안재현



활동터소식

- 31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36 **후원인의 소리**
- 3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3. 7. 1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다운이 양은지, 김옥희, 최기진, 서민정, 이미경, 최양희, 신인환, 최인준, 조유진, 정소연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여는 글

2013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성큼 다가온 여름, JTS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희 JTS도 장차 다가올 무더위를 슬기롭게 견뎌 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JTS의 해외 사업장은 한국 보다 무더운 동·서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활동가들은 7/8월호 소식에 사업장의 뜨거운 더위를 생생하게 담아주셨습니다. 해외활동가들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 그것은 아마 나눔과 봉사 에 대한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활동가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5월에는 해외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길벗과 함께했던 어린이날 명동 거리모금 캠페인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조계중 사회복지재단과 함께했던 희망두유 전달식,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JTS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갈 것 입니다. 국내외 활동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서로 협력하고 JTS의 목표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JTS 소식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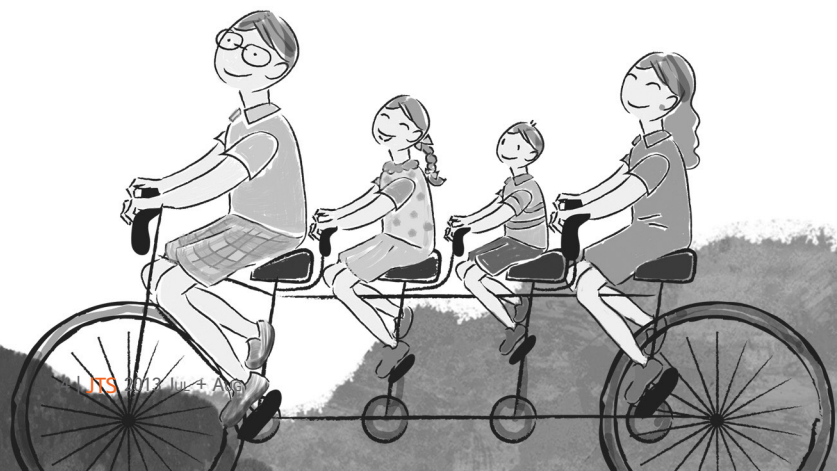


사진 / 핸드펌프 보링 후 물이 나오자 기뻐하는 아이들



인도의 여름

인도의 여름은 한마디로 뜨겁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그 더위가 지상의 많은 것들을 말려 죽일듯한 기세지요. 득실득실 하던 인도 모기들도 한여름의 높은 온도에 바싹 말라 침대위에 곤히 누워 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박성재 활동가

제가 있는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이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한두 시간 식힌 후에야 겨우 사용 할 수 있답니다. 밥을 지을 때는 가스불의 열 기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땀 맛인지 밥맛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이 더위로 인하여 온 전신에 땀구멍이 다 열려 온몸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내고 한증막에 가는데, 인도에서는 여름 내내 한증막 무료 쿠폰을 무한정 쓸 수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것도 마실 물이. 물이 부족할 때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흙탕물을 보면 정말 난감합니다.”

마을의 식수 현(現) 마을에는 식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해 건기에 식수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우물은 마르고 지하수가 없어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저로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밥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오늘도 마을을 다녀왔는데, 마을 주민이 저한테 “브라더, 빠니 짜이에” (물이 필요해요)그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것도 마실 물이. 물이 부족할 때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흙탕물을 보면 정말 난감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을... 등게스와리 주변에 15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핸드펌프당 사용 인구를 나누어 물이 부족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핸드펌프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은 땅에 석탄층이 있어 땅을 파기만하면 석탄이 섞여 나온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탄을 마시기에 병에 잘 걸리고 치아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이번에 핸드펌프보링 5개를 4박 5일 동안 밤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JTS 19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성공률이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19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디쯤 물길에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동안 힘써 일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입니다. 핸드펌프도 튼튼하고 좋은 것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핸드펌프 보링하는 작업자들이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15세에서 20세 정도의 청년들이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10명 정도의 작업자들이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감동이었고, 가슴 찡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위해 어린 나이부터 일하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링작업을 마치면서... 저에게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물 위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저도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를 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인도에서 일한지 어느덧 7개월... 지금 생각해보면 문화 차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마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인도JTS는 300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300년이라는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무위이치 [無爲而治 :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

인도에 파견되고 처음 소식지에 적었던 사자성어입니다. 좁은 소견에 사로잡혀 큰일을 보지 못할까 조심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자. 대의를 보고 발맞추어 나가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구호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돈 받지 않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일일수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1년을 잘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라 란디르!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라훌니가르 핸드펌프 보링 작업중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 물.

사진 / 교사워크숍 단체사진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 제4회 JTS 교사 워크숍 후기

필리핀JTS에서 주최하는 교사 워크숍이 어느새 4회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JTS 훈련 센터에서 진행된 제4회 교사 워크숍에는 JTS가 지원한 학교 중 다물록의 5개 학교와 리보나의 2개 학교에서 15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사 워크숍을 총 지휘한 배명숙 활동가와 처음 교사 워크숍 진행에 참여한 김진진 활동가의 대화를 통해 이번 교사 워크숍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부엌데기에서 안방마님까지

김진진(이하 김) : 우선 개인적인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배명숙(이하 배) : 이번 교사 워크숍은 무엇보다 나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뭐랄까, 부엌데기가 이제 안방마님이 된 듯한 느낌? 교사 워크숍이 벌써 4회째인데, 나는 2010년부터 활동했고 2011년에 처음으로 교사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 형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필리핀JTS 현지 스텝이었던 트렐 교수님이 기획을 하고 역할을 나누었는데 나는 식사 준비를 맡게 되었어요. 3박 4일 동안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면서 즐거웠지만 실제로 교사 워크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몰랐죠. 그때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선생님들에게 수학 교수·학습법 강의도 했고 팀별 토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했죠.

2회 때부터 현지 스텝없이 한국인 활동가끼리 교사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1회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에 치중했다면, 2회 때부터는 JTS의 비전과 연관 지어 교사 워크숍을 기획하고자 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한 건 교사가 마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침 마닐라에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애국·애향심 강의와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어 교사 워크숍 진행자로 초빙했어요. 의도한 바는 좋았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마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김 : 왜요?

배 :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좋았지만, 오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 자신의 삶의 무게도 견디기 어려운데 마을 리더가 되라고 하는 게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한번은 프로그램 중 필리핀 국기를 바라보면서 불 꺼놓고 나의 조국,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의 감사 인사에 감동받아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뭔가 많이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 키다마의 조지 선생님이지요?

배 : 맞아요. 또 사라와곤의 조비 선생님도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에게도 개인의 삶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픈 부분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지 마을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2회 교사 워크숍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후 대표 교사 모임을 발족한 거죠. 다물록 시 6개 학교 대표 교사 모임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성과가 2012년 12월 3회 교사 워크숍으로 이어졌어요. 2회 워크숍 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다뤘었는데 그걸 실제로 학교에서 실천한 곳이 블루안이고 그때부터 블루안 마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회 교사 워크숍 때 블루안을 최고 학교로 시상했죠. 또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실을 아름답게 환경 미화한 곳을 눈여겨보고 역시 시상했는데 바로 키다마의 조지, 사라와곤의 조비 선생님이예요.

이런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또한 처음에는 관전만 했던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감개무량합니다.



사진 / 교구발표



리코더수업

김 : 이번 교사 워크숍 때 능숙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 감탄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군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김 : 그럼 이번 4회 교사 워크숍에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교구 제작 시간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먼저 제안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좋았지만,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능력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어요.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꼭 큰 돈을 들여 거창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색지와 가위와 풀,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전기가 없어서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만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그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욱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 : 맞아요. 또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선 선생님들과 친해지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2회 워크숍 이후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학교 방문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교에 자주 찾아가죠. 자주 만나다보니까 젊은이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점 솔직한 이야기도 털어놓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다. 또 필리핀에서 교사는 한국에서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 관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우리의 좋은 파트너예요. 우리의 역량 상 직접 마을 주민을 조직하기는 힘들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아는 사람이 블루안의 찰스 선생님이예요. 찰스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블루안은 그냥 좋은 학교였어요. 하지만 찰스와 지지 그리고 아담 선생님, 이 세 명이 만나 마음이 맞으니 힘들어도 함께 웃으며 학교를 바꿔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블루안의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가 마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시작되는 변화

김 : 이번 워크숍 때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고 1회부터 계속 참가한 선생님도 있잖아요. 지켜보니 어떠세요?

배 : 새로 온 알라윈, 만타부, 바삭, 미카실리 선생님 모두 적극적이어서 기대가 돼요. 사실 필리핀 문화에서는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면 주최측에서 교통비까지 지원해줘요. 우리도 필리핀 스태프가 기획했던 1회 때는 교통비까지 지원해줬죠. 하지만 2회 때부터는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만큼 돈을 낸다, 이런 의도였는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면 등록비 낸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워크숍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번에는 등록비 얼마예요.' 하고 선생님이 먼저 물어봐요. 그런 것도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지요.

2010년에 JTS 훈련 센터를 완공한 후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목적으로 거쳐갔지만, 그중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예요. 1회 때부터 어설프게나마 빈 그릇 운동, 물 절약, 샴푸 안 쓰기 등을 시도했었죠. 이번 워크숍 때 보니 선생님들도 이제 몸에 뻐는지 음식 남기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대청소도 스스로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 선생님들도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배 : 그런 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참 고마워요.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

배 : 교사를 마을리더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원주 회장님을 포함해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막연했어요. 처음엔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특히 이번 4회 워크숍 때는 프로그램 기획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진행도 함께 하는 데까지 발전했죠.

점점 더 내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한국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이티에스가 자꾸 프로젝트하자 조르면 나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같이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 : 저도 선생님들의 적극성이나 능력을 볼 때



교사들과 아침 체조중인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

충분히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함께 해야겠죠. 우리가 더 자주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방과후수업도 해보면 좋겠어요.

배 : 맞아요.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 역시, 학교가 활발해지면 마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이 신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줄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 다음 워크숍 준비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조그마한 도토리에서 울창한 떡갈나무가 자라나듯, 우리가 하는 일도 지금은 미약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따농마을 원로가 학교건축협정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 인 마을 이장님이 JTS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업장 소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JTS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태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문태훈 활동가

연동미어군 인·따농마을 학교건축 협정 캄보디아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날은 6월 3일인데 지난날 30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왔습니다. 덕분에 건기에 날리던 먼지는 많이 없어졌지만 파리와 모기가 늘었고, 무엇보다 도로가 질퍽해져서 마을을 오가는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4~5월에 벼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6월로 접어들면서 파종을 했다고 하더군요. 농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캄보디아 JTS에서 새로이 학교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인(In)과 따농(KaNong) 두 마을은 주민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빠서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농번기에만 바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마을 주민들은 벼농사가 끝나면 숲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고, 집을 고치고, 마을 행사를 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등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농번기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바쁜 3~4개월 정도이니 바빠지더라도 짬을 내서 학교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학교건축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민들과 4~5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는 가능한지,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마을에서 조달할 수는 있는지, 자재운송은 가능한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나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과 논의를 하다보니 마을마다 인상 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 마을 이장님은 참 똑똑하고 지도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JTS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마을 주민에게 설명해주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재운반차량이 들어가기 쉽게 마을 진입로를 보수했는데, 이장님이 나서서 열성을 보이고 마을 주민들도 다같이 참여해 쉽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진 / 교육청 직원이 따농마을 주민에게 JTS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



사진 / 인 마을 진입로 보수 완료된 모습



따농마을은 마을 원로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라타나끼리 소수민족 마을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이장·부이장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마을 원로가 있습니다. 마을의 행정적인 대표는 이장이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 원로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마을 원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농마을 원로께서는 8 ~ 11월 사이에는 홍수가 날 수 있으니 자재를 공급할 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JTS를 대신해 주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며 독려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JTS는 언동미어군(Andong Meas District) 인과 따농마을에 학교지원을 결정하고 교육청과 군청, 면과 함께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JTS에서는 앞으로 건축자재와 기술자 공급을 맡게 됩니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관개수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우바마을 촌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2011년 이맘때쯤 JTS와 인연을 맺고 첫 파견지였던 스리랑카를 거쳐서 지금의 인도네시아란 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소식지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써왔다. 어느 순간부터 느껴온 것이지만 소식지를 써야하는 순번이 점점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2011년 12월 스리랑카 중북부 바브니아 타밀족 마을에서



활동사진 몇 개 넣고 미담사례 몇 개 넣고 “아 아름다워라!”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사실 나도 과거에 그렇게 쓰고도 나중에 소식지가 나온 것을 받아 본 후 손발이 심히 오그라들던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JTS를 후원해주는 많은 후원자들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으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소식지를 쓰는 활동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작년 하반기 부터는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년여 간의 시간동안의 내 이야기를 해보자 한다.

활동가!! 그래. 이 “활동가”란 이름으로 2년을 살았지만, 아직은 이 이름이 참 쑥스럽고 어색하다. 현장 활동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참 설레이는 이름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청년들이 각박하고 비좁고 들어갈 틈도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의 도피로, 유행과도 같은 이런 트렌드를 쫓아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혹은 호기심과 활동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단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간다. 그들 중 일부는 만족하며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대다수는 자신들의 환상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그냥 “좋은 경험”만 쌓고 돌아온 한다.

나 역시 대학생시절 “선재수련”이라는 워크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선배 “활동가”들의 모습을 동경하며 단순하게 로망만 가지고 시작 되었던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의 과정을 돌아본다면 그 “로망”과 “현실”의 간극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깨져가는 과정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또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으나 싶다.

처음엔 이랬다. 11년 동안 다녔던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의 기말고사를 끝내고서부터 본격적으로 파견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11일, 스리랑카란 나라에 첫 발을 던지게 되었다. 나에게 익숙했던 인도아(印度亞)대륙의 나라들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뭔가 또 다른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겉론 아주 평온한 느낌이었으나, 불과 2년 전이야 주류인 싱할리족과 타밀족사이의 내전이 끝난 아직 내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현지 NGO인 Sewalanka Foundation의 Islander Center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화장실, 우물보수, 농업용 관개수로, 마을 도로보수, 농자재 지원 등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아일랜드 센터는 정글 한가운데 있었다. 나 홀로 파견이었고 선임자도 후임자도 없었지만 모기장 안에 살고 있는 모기와 쉴 새없이 똥을 싸놓고 도망가는 도마뱀, 사실상 내방의 주인이나 다름없었던 개미, 늘 번기물 속에서 서식하고 있던 개구리 등등 못 생명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다.

처음에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으나 어찌 어찌해서 나중에는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였다. 일을 하다 보니 비단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었던거 같다. 사안 사안마다 내 입장과 파트너의 입장이 달라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였다. 처음이라 의욕만 너무 앞서다 보니, 한국인 특유의 추진력으로 저돌적으로 밀어부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히 그때는 딱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내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오성근활동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나는 한국사람 특유의 조급증, 그리고 지나친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던 스리랑카에서의 6개월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그러나, 이 6개월여의 시간은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할 거 같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련하고 좋은 기억이다. 그렇게 6개월의 짧은 파견기간이 끝나고 2011년 1월 11일에 한국에 귀국을 하였다.

2월에 KCOC (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NGO봉사단원 교육을 2주 동안 받고 3월 20일에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었다. 사실 처음에 JTS에 파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도”를 희망국가로 신청하였으나 인도의 “눈물”이라는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고, 이후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애초에 생각하였던 인도와는 물리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선 스리랑카와는 다르게 그냥 무난하게 지낸 것 같다. 함께 활동하는 2명의 한국인 활동가가 있었고, 우리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인프라 사업만 있고 사업장의 위치도 대부분 사무실 근처로 접근성이 좋았다. 스리랑카보다 소비수준이 높은 나라였다. 다만,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꼈다.

스리랑카가 사실상 불교국가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란 국가는 인구 2억 5천만 명 중 약 88%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이고 특히, 활동 근거지인 서부 수마트라지역은 99%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이슬람 우세지역이다.

7월, 8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라마단(금식월)에는 참 힘들었다. 주변 이슬람 사원들에서는 밤새 경전독송과 기도소리가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들이 많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서 밖에 나가면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었다. 사업은 사업대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성향은 한국 사람들의 성향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문화에서는 결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것을 매우 나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가끔 화를 내고 언성 높여서 싸우지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세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내고 갈등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문화에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좀처럼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드러내질 않는다. 화내고 싸우는 것, 갈등을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 혹은 터부시하기에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 가끔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유희유”정도로 합리화된다. 즉, 우리와는 정반대로 표리부동한 것에 대해서 관용적인 문화이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너무나도 화나고 괴심하였으나, 나중에는 다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2012년 프로젝트를 마치고 현재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가를 위한 백서작성, 그리고 2013년도 프로젝트와 이후 3개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지부에서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동안, KOICA (한국국제협력단) 3개년 사업이 아닌 3년의 단 년도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물론 소정의 성과도 있었으나 많은 부족한 점들 또한 표출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냉철하게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성찰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이후 사업에 있어서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3년은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물인 유치원과 보건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마을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들을 염두 해 두고 있다. 또한, 지역 모자보건과 영유아 보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한 단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이제 2년이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 보잘 것 없고 이 일들이 생각보다 큰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 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여실히 느끼곤 한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많은 지인들이 이제 그만하고 한국에 돌아오라고 한다. 나 역시 어느 순간엔 이곳을 떠나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도 없을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좋은 글귀가 있다.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세상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개발 분야 역시 ‘좋은’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이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개발, 그저 선의를 품고 실천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개발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어떤 성격의 개발 인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웁김이 머리 말 중〉 -거대한 역설, 필립 맥마이클 저, 조효제 역(Philip McMichae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물질적인 풍요, 가계 수입의 증대, 인프라 구축,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변화”가 그것이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이 “좋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퍼실리테이터” 즉,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왕초보 활동가 적응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더니 새벽부터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한창 우기가 시작되어 짙 하던 햇볕도, 무더웠던 더위도 온데간데 없었고 강한 스콜만이 내리고 멈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이모아 활동가

좌측부터 이카잉, 쉰쉰, 김성현 활동가



제가 있는 지역은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비가 내립니다. '이러다 지붕이 뚫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연일 강한 비가 계속되는 통에 오늘도 제 머리 속엔 미얀마 사업장 주민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토록 걱정한 바엔 차라리 마을에 찾아가 직접 마을 주민들과 알곳은 날씨라도 탓하며 비가 그치길 바라기라도 할 텐데 하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걱정들을 한번이라도 줄이고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공사는 잘되고 있는지, 마을 주민들은 별로 없는지를 묻고 있어요. 우기가 더 깊어지는 날에는 흥수가 잦은 '짜웅공 타운십' 마을 주민들이 수해라도 입을까 걱정인데 우기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야속한 비가 설새 없이 내리는 통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가름은 신적 존재가 되어 잠시라도 비를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도 채 안된 활동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보도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번이라도 마을에 더 찾아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니 이제 막 왕 초보를 탈출한 활동가로선 답답할 노릇이지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은 이런 제 맘을 아는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시고, 오히려 먼 길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도 마을 주민들은 몇 배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제 역할이, 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활동을 한지 몇 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조금씩 사업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JTS에서는 긴급복구사업으로 3개의 다리와 1개의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리 1개는 완공이 되어 완공식 행

위험천만한 뻘예지 다리를 건너 필자



사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건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운 날씨에도 비 오는 곳엔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공사장에 나와 자갈과 모래를 나르고 몇 십 톤에 달하는 다리 타워를 세우면서 흘리는 마을 주민들의 땀방울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초보 활동가인 저는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JTS의 정신을 몸소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 가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미얀마에 온지 3개월도 채 안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자니 앞으로 경험하게 될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기대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발한발 나가고 있는 JTS 미얀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세요.

뻘예지 다리 타워를 세우고 있는 주민들



거리모금 종료 후 단체사진



거리모금을 함께 진행해주신 봉사자분들

모금함을 들고 즐거워 하는 아이



배종옥씨와 거리모금에 동참한 아이



어린이 날을 맞아 한국 JTS 자원봉사자들과 배우 한지민·배종옥·박진희·이재우·임세미·차종호와 작가 노희경 등 많은 연예인들이 제 3세계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거리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명동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께 거리모금 동참을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리모금에 참여해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금활동을 외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금활동을 권하면 대부분의 시민들도 외면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뜻밖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모금통을 내밀었는데, 선뜻 천원, 오천원, 만원을 모금통에 넣어주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느껴요.”

(이유진, 26)

‘천 원이면 굶주리는 어린이의 일주일 영양식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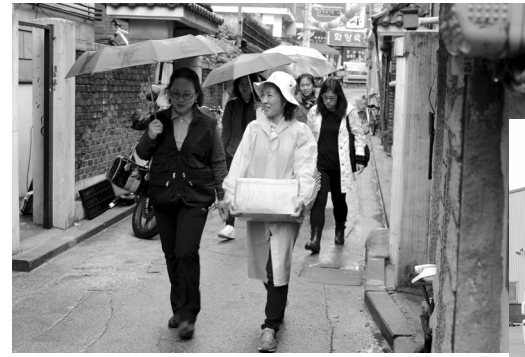
모금에 동참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봉사자분들에게도 거리모금 활동에 동참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소감을 들으니 더 큰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매년 어린이 날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모금 캠페인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분유, 이유식, 의약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날 모금 된 금액은 제3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어린이날 기념 거리모금 행사

지난 5월 4일, JTS와 길벗이 함께 한 어린이날 기념 거리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제 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활동에 참여해주신 만큼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희망두유 전달

JTS는 5월 9일, 국내의 소외 받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시내 각 구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영양 두유 38만 리터를 전달하였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서울시 복지재단 전달식에는 한국 JTS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과 박지나, 김기진 공동대표,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고칼슘 두유와 아기두유 두 종류 총 35만 개가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이 두유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6만여명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 10일 광진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JTS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직접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두유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전국에서 46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고칼슘 두유와 아기두유 3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이사장 법륜 스님은 “가난과 신분적 차별 때문에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인류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구호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히셨습니다.

서울시 각 구와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에 전달된 두유가 독거노인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녘동포 식량지원을 위한 「통일나눔」 성금 전달식

6월 24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통일나눔”의 유은옥, 김동균 공동상임대표님들과 김인호 고문, 이정희 사무국장께서 JTS를 방문하여 수원 지역에서 모금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통일나눔은 지난 2011년 7월 수원 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해 창립된 시민단체로, 2011년 말부터 “북녘 동포에게 밀가루 보내기 1만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도 어려워짐에 따라, 통일나눔은 그동안 수원 지역에서 모금한 성금을 JTS에 기탁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JTS의 대북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일나눔과 통일나눔의 모금운동에 참여한 수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JTS 역시 하루 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마치고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지난 6월 1일, JTS의 활동과 이념에 관심 있는 자원활동가와 교사 여러분을 모시고 JTS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JTS 세계시민교육은 JTS의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한 JTS의 프로그램으로, 이번 강사양성 워크숍은 앞으로 JT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봉사자와 교육자 분들을 초청한 '제 1회 JTS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의 교육에 앞서, 최기진 JTS 총무팀장님께서 한국 JTS의 이념과 사상을 비롯하여 현재 북한사업과 제3세계 사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 JTS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 라는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로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빈곤, 환경, 인권과 평화 와 같은 전세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는 큰 틀 안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세계 속에서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현재 지구촌 이웃들이 처한 문제와 고통을 알고 이에 공동체 의식을 발휘,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도와줄 교육자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많은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주사위를 던져서 정해지는 운명에 따라 성별부터 지역, 인종, 빈부의 정도가 정해지는 '인생 게임'은 많은 선생님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따른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좋은 평가 함께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이 잠재력을 품은 청소년들을 통해 활성화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교육자,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과 반면에 이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던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이었지만 앞으로 JTS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수료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 매력적인 봉사자의 삶

함께하고 글쓴이 JTS 회원팀 자원봉사자 - 안재현

JTS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어간다. 직장인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하고 틈틈이 도와주는 정도이다. 내가 JTS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정토회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이다. 가끔씩 하는 소극적인 봉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고, 정토회의 일요일 당직을 도맡아 해보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 JTS에서 근무하시던 분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JTS 회원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회원관리 업무는 컴퓨터로 작업할 일이 많은 편인데, 나도 사무직이다 보니 처음에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언뜻 단순한 일처럼 보였는데, 막상 실무를 접해보니 업무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관리 시스템의 전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아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 정말로 세상에 만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지금은 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어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 별 어려움 없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많은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편리함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은 편해질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든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혜택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도 안겨주는 것 같다.

항상 느껴왔던 것이지만, JTS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웬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부채의식이 쌓이는 것 같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 마음을 내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힐링이 된다. 아니, 이들의 삶 자체가 힐링인 듯하다. 그냥 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편해진다. 아직도 나는 내 마음 알아차리기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분들은 남의 마음까지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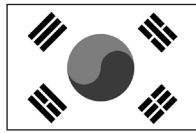
JTS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JTS 활동가들의 모습을 글이나 동영상으로 자주 접하게 되고, 자원봉사 과정에서 활동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가끔은 직장을 그만두고 상근활동가로서 이분들과 함께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막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의 직장에 계속 매달려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땀에는 수행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속의 일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직장생활과 봉사자의 삶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대로 주제파악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래도 가까이에서 JTS 활동가 여러분이 있어, 나에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자로서의 삶을 일깨워주는 기준이 되고 의지처가 되어 준다. 이들은 내게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다. 그 분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JTS가 그리운 세상을 모두와 함께 꼭 이루기를 마음 깊이 기원한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불다피아 청소년 명상학교 학생들의 후원

불다피아 청소년 명상학교의 효암 고등학교 학생들이 5월 17일 부처님 오신 날 나눔행사를 통해 모은 돈 36,000원을 JTS에 후원 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ndia 인도



양중맞은 액션송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치원팀

1. 부처님 오신 날 (수자타 아카데미)

- 모던 댄스부터 욱불 의식까지, 수자타 아카데미 초파일 풍경
오늘은 우리 고향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위대한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웅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은 주위를 두리번대며 행사 시작을 기다립니다. 곧이어 모던 댄스팀의 야심찬 공연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붓다에 대한 에세이 수상작 낭독이 뒤를 잇습니다. 특히 유치원생들의 양중맞은 액션송 솜씨가 관객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죽비 소리에 맞춰 입정을 하고서 부처님에 대한 법문을 뿌리야팔 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욱불 의식을 전교생들이 하고 나서 아침부터 고대하던 특별식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콤한 유미죽과 커다란 빵을 받아든 학생들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씨앗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체중아를 위한 영양식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들

2. 저체중아 영양식 지급 (자바카 병원)

자바카 병원은 저체중아 조사를 마치고 총 406명에게 쌀과 달 그리고 머스타드오일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식을 받아가는 뒷모습이 흐뭇합니다. 심각 저체중아 128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추가지원을 하고 체중조사를 하여 호전도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방학에 앞서 초등생과 상급생리더 및 교사들에게 각각 구충제를 나눠줬습니다. 여자 상급생과 여교사들에게는 추가로 철분제를 20일치 나눠줬고 개학하고는 40일치를 더 나눠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학교가 개학하면 병원도 다시 문을 엽니다. 그에 앞서 병원 안팎으로 대청소를 하고 약품창고도 정리했습니다. 다시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을 그리며 마을 분들을 기다립니다.



핸드펌프 보링 이후 물이 솟아오를때 춤추는 아이의 모습

3. 식수 해결을 위한 핸드펌프 설치 (마을개발)

지금 인도는 아주 더운 한여름인데, 건기여서 물이 부족합니다.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5개 마을에 핸드펌프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대략 50미터) 파이프를 설치하고 손잡이를 설치하여 핸드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5개 마을에 땅 파는 (보링)작업이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건기에 물이 퉁퉁 나오길 바랍니다.



자르하리 마을회관 공사 사진

4. 마을운영을 위한 마을회관을 (마을개발)

자르하리 마을에 마을 회관 공사가 한참진행 중입니다. JTS에서 모든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고사리손을 보태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밥을 지어 점심을 함께 합니다. 마을 회관이 지어지면 계모임도 운영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Philippine 필리핀



교사워크숍 수료식 (좌)사라와곤 선생님, (우)이원주 대표님

1. 5월 16~18일 제4회 JTS 교사워크숍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JTS 훈련 센터에서 JTS가 지원한 알라윈, 만타부 학교 및 다물록시 6개 학교에서 총 15명의 선생님과 함께 제4회 교사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과 이규초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아플란학교 공사중인 마을 주민들

2. 5월 27~28일 블루안 학교 페인팅 및 빗물 흉통 설치

제3회 JTS 교사워크숍에서 최고 학교로 선정된 블루안 학교에 페인트와 흉통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배명숙, 김진진 활동가가 방문하여 함께 학교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흉통 설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흉통은 지붕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블루안 학교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공사중인 킬라올라오 학교

3. 6월 5~7일 신규 학교 건축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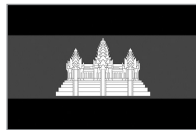
다물록 시 킬라올라오와 아플란 마을에 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8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섯재배 교육중인 현지스텝 미오, 띵

4. 4월 버섯 재배 교육 시작

KOICA-COVID에서 실시하는 버섯 재배 교육에 JTS 스텝이 4월부터 매달 2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에 최적의 조건인 센터에서 버섯 재배를 성공해 센터 주변 마을인 알라윈과 만타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Cambodia 캄보디아

1. 문구류 지원

지난 5월부터 새학기에 맞추어 문구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문구류 지원을 통해 학용품이 없어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JTS의 지원을 받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2. 김재령 활동가 파견

지난 6월 10일 김재령 활동가가 캄보디아JTS 책임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재령 활동가는 인도JTS에서 8년, 아프가니스탄JTS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며 마을개발과 건축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JTS에서 활동할 김재령 활동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우바 관개수로 준공식

1. 인도네시아 JTS 현장 평가

KCOC(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신재은 부장이 6월 5일, 6일 양일에 걸쳐서 인도네시아 JTS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갔습니다. JTS사무실과 단원숙소, 2012년도 코이카 프로젝트 중 관개수로와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오성근 활동가의 KCOC 단원프로젝트였던 "빗물을 이용한 초등학교 식수 및 생활용수 개선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Myanmar 미얀마



쭤차웅다리마비지 공사현장

1. 쭤차웅 다리 재건축(긴급복구)

쭤차웅 다리는 현재 완공 되어 6월말 완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기 때마다 대나무로 만든 위험한 다리가 떠나려갈까 걱정했던 마을 주민들도 이젠 콘크리트로 만든 튼튼한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삐예지 다리 타워 공사 작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2. 삐예지, 탄터빈 다리 재건축(긴급복구)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삐예지, 탄터빈 다리 재건축은 콘크리트로 지은 쭤차웅 다리와 달리 현수교로 지어지고 있으며, 다리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다리 기둥(타워) 세우는 일에 40~50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잘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만 마무리 되면 6월 말엔 마을 주민들이 걱정 없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공학교 공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3. 타공 학교 재건축

타공 초등학교 건축은 마을 주민들과 주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빠른 건축진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외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완공은 6월 말경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터빈 마을 공사 현장에 자갈과 모래를 운반하는 주민들

4. 학교 기자재 수요 조사

학교 기자재 지원사업은 모든 모니터링 및 수요 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6월 말 책걸상 및 교탁이 10개의 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웅산 나루터 완공식에 참석한 JTS 미얀마 활동가들

5. 이웅산 장군 나루터 완공식 참여

미얀마 민족 영웅인 이웅산 장군이 연설을 했던 이웅산 나루터의 재건이 완공 되어 지난 5월 5일 미얀마JTS 모든 스텝들이 완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완공식에 많은 인사 및 관할 직원들이 참석하여 JTS의 활동 내역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고, 이를 통해 JTS의 활동 이념 및 활동 내용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비선이나 구조선 등 특수목적용을 위한 전용 나루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인도	김정준, 김신아, 주연우, 최동호, 박성재, 김연희, 변유경, 이유진
필리핀	이원주, 이규초, 송현자, 배명숙, 송지훈, 이재곤, 김진진
캄보디아	정철상, 박병수, 이대원, 문태훈, 김재령
인도네시아	임희성, 오성근
미얀마	김성현, 이모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